

[ **종합·국제** ]

# 남북협력사업 승인 간소화

## 정부, 사업자 승인제 폐지기로 北 주민접촉 신고도 일부 면제

정부는 남북협력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협력사업자' 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에 대한 승인 제도만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남북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승인과 함께 '사업자' 승인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안을 8일 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키로 했다고 통일부가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 주민(법인·단체 포함)과 공동으로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학술·경제 등에 관한 활동을 하려 할 때 사업자 승인과 사업에 대한 승인을 모두 받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간소화, 사업에 대한 승인만 받도록 되도록 했다.

또 지정된 교역 당사자만 대북 물자 반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 '교역 당사자 지정제도'도 폐지, 반출·입에 대한 승인 제도만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 원칙적으로 사전 또는 사후 신고토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완화, 승인받은 협력사업의 목적 범위 내의 접촉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 대상은 추후 대통령령에 상세히 규정키로 했다.

또 수시 방문 증명서를 갖고 사업상 개성공단·금강산 등을 자주 왕래하는 이들이 매년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매년 반복할 때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 출입계획을 입력하기만 하면 되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리고 정부가 교역 당사자에게 반출·입품의 가격·수량·품질, 거래조건 등에서 필요한 경우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적용 요건을 '남북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교역 및 수송장비의 운행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

설했으며 수송장비 운행 승인의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남북간 교역의 다원화 추세를 반영, 교류협력법에 관여하는 교역대상을 물품을 넘어 기술·용역·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교류협력법상 '교역'은 '남북간 물품의 반출·입'으로 규정돼 있다.

또 남북협력기금을 심의·의결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교수학 산하 실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증진 및 관련 정책 수립과 관련, 정부가 전문 지식·기술을 요하는 업무를 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명시됐고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원 등을 처벌할 경우 그들을 공무원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남북간 교역 및 협력사업과 관련된, 허위보고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연합뉴스

## ‘長江 논쟁’ 끝

7,062km 아마존강  
세계 최장 공식확인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은 남미대륙의 아마존강으로 확인됐다고 AFP 통신이 페루 수도 리마에 있는 리마 지리학회 발표를 인용,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마 지리학회는 이날 “페루 남부 안데스 산맥에서 시작돼 페루와 브라질을 지나 대서양으로 흘러드는 아마존강의 전체 길이는 7천62km로 조사됐다”면서 “아마존강이 아프리카의 나일강보다 391km가 길다”고 밝혔다.

아마존강이 처음 시작되는 지점은 페루 아레키파 주 네바도 케추이사 산기슭의 해발 5천150m에 위치한 아파세타 계곡 용출인 것으로 조사됐다.

나일강의 길이는 조사 주체에 따라 6천614~6천670km로 조금씩 다르게 발표되고 있으며, 리마 지리학회는 6천671km라고 말했다.

리마 지리학회의 조사는 세계 과학자 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번 조사 결과는 그동안 아마존강과 나일강을 놓고 전개돼온 ‘세계에서 가장 긴 강’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이에 앞서 브라질 국립환경연구국(INPE)은 지난 2005년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관측한 결과 아마존강의 길이가 6천627~6천992km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아마존강은 워낙 굴곡이 심해 정확한 길이를 측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왔다.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6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예비선거에서 힐러리 상원의원을 누르고 승리한 뒤 부인 미셸 오바마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 오바마, 대선후보 지명 ‘성큼’

## 민주, 노스 캐롤라이나 경선 압승 인디애나 신승 힐러리, 완주 다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6일 프라이머리(예비선거) 2연전에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에 압승을 거둬 대의원 격차를 더욱 더 벌였다.

오바마는 이날 노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힐러리에 이겼으로써 단일목사였던 제레미아 라이트 목사의 ‘갯 댄 아메리카’ 발언 파문 이후 부진을 떨쳐내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에 한발 더 다가갔다.

하지만 힐러리는 인디애나에서 막판까지 접전을 벌인 끝에 가까스로 승리했지만 경선 완주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승부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오바마는 노스 캐롤라이나에서 99% 개표결과,

58%의 지지를 얻어 42% 득표에 그친 힐러리를 16% 포인트라는 큰 차이로 이겼다.

힐러리는 인디애나의 개표가 7일 오전 1시(현지시간) 현재 99%까지 진행된 가운데 51%의 지지로 49%의 지지를 얻은 오바마에게 2%포인트라는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로 이겼다.

오바마는 노스 캐롤라이나의 주도인 롤리에서 환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오늘 밤 우리는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을 200명도 넘겨놓지 않고 있다”며 후보 지명을 받았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힐러리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2연전의 결과는 이미 예상됐던 것이라면서 앞으로 남은 웨스트버지니아 등 6개 지역 프라이머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선 완주를 다짐했다.

CNN은 7일 새벽 1시 현재 오바마가 모두 1천282명의 대의원을 확보했고, 힐러리는 이보다 148명 적은 1천672명의 대의원을 얻었다고 집계했다. /연합뉴스

#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 추진 합의

## 후진타오-후쿠다 정상회담

일본을 국빈 방문중인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7일 오전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 등 공동 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하고 ‘전략적 호혜관계’와 환경문제 협력에 관한 2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건의 공동성명은 1972년 양국 공동성명 이후 4번째 공동문서로 불리

는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과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한 협력을 담은 ‘기후변화에 관한 공동성명’으로, 양국 관계의 수준을 한단계 격상시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동성명은 특히 일본이 전후에 ‘평화 국가’로서 걸어온 과정을 중국이 처음으로 공동문서를 통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전쟁과 침략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책임을 거둔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총리 관저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는 중일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청소년 교류 확대와 양국 수비의 정기적인 상호 방문에 합의하는 한편 양국 고위급 경제대화를 올 가을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은 21세기의 새로운 양국 관계의 지점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 NASA 워든 소장 “이소연 우주인 맞다”

미 항공우주국(NASA) 에이즈연구소의 피트 워든 소장은 7일 “NASA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자로서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소연 씨가 우주인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웨이튼 그린

드 워커힌 호텔에서 열린 ‘서울디지털포럼2008’ 기자회견에서 NASA 웹사이트가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씨를 우주인이 아니라 ‘우주비행참여자’로 지칭한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연합뉴스

2009학년도 교사 임용시험 대비

관정없는 공부는 낭비일 뿐입니다!

서울대 대학원 교육학 전공의 정봉과 강!

# 국내영교육학

관내영고시학원 529-0090 개강 7월 4일

http://www.naeyoung.com

자격증은 취득하고 싶은데...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많다면!

360원 국내 지원 교육원 교육! 가장 인기 빠른 자격증, 공무원 100% 합격 준비

나를 위해서 편하게 하라.

주소창에 [www.sein.co.kr](http://www.sein.co.kr) 를 쳐주세요.

2. 경찰채용, 승진 포털 아카데미 "세인폴리스" /www.seinpolice.co.kr

3. 온라인 고용관리 전문 교육 "세인LMS" /www.seinlms.co.kr

4. 전기 · 소방 전문 교육 "세인나라" /www.seinnara.co.kr

대한민국 No.1 온라인 평생교육 세인애듀 02/3144-0075~8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액 [단위: 원]	비고
2008타경 410	1	남구 지역동 141 249㎡ [공유자 김재홍, 김새희 지분 각 216㎡의 17 전부]	전	23,580,000 23,580,000	특별매각조건 있음 [농지취득자격증 없음,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하여 허용]
2008타경 1550	1	당양군 고서면 용문리 263-1 1200㎡	답	20,600,000 20,600,000	농지취득자격증 없음
2008타경 2102	1	화순군 화순읍 이삼곡리 산288 7835㎡	임야	14,103,000 14,103,000	
2008타경 2430	1	장성군 통화면 구림리 231-3 564㎡ 등소 231-4 1406㎡ 등소 231-6 1820㎡	답	35,700,000 35,700,000	임야매각
2008타경 2508	1	당양군 고서면 성림리 137-8 1911㎡ [공유자 손수철 지분 2분의1 전부]	전	16,296,000 16,296,000	임야매각, 특별매각 조건 있음 [농지취득자격증 없음,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하여 허용]
2008타경 2508	3	등소 380 843㎡ [공유자 손수철 지분 2분의1 전부] 등소 313-1 640㎡ [공유자 손수철 지분 2분의1 전부] 등소 314 1983㎡ [공유자 손수철 지분 2분의1 전부]	임야	22,371,500 22,371,500	임야매각, 특별매각 조건 있음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하여 허용]
2008타경 2688	1	남구 출촌동 145-5 182㎡	대	16,481,000 16,481,000	
2007타경 37323	2	북구 흥룡동 655 1293㎡ [공유자 기시 9㎡] 간이항상설 1식 등소 656 155㎡ 등소 657 54㎡ 등소 657-1 15㎡ 등소 658 96㎡ 등소 659 311㎡ [공유자 주벽 (축축) 26.5㎡] 등소 657 98.87㎡	답	328,987,800 328,987,800	임야매각, 제시의 건물 포함, 임대차 있음
2007타경 43700	1	북구 두암동 601-21 49.8㎡	도로	9,980,000 9,980,000	임야매각
2007타경 43700	2	남구 서지면 솔재리 329-3 185㎡	도로	3,070,000 3,070,000	임야매각
2007타경 47757	1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347 203㎡ 등소 348 35㎡ 등소 365 545㎡ 등소 388-4 215㎡	전	105,010,000 105,010,000	임야매각, 제시의 건물 [기계기구] 포함, [공공차량범칙기] 7대에 의한 기계, 기구 등 특별매각조건 있음
2008타경 2867	1	북구 흥룡동 799-29 74.7㎡ [정광조 지분 4분의1 전부]	도로	3,162,000 3,162,000	특별매각조건 있음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하여 허용]